

귀농·귀어가구 ‘역대 최소’

지난해 귀농·귀어 8798가구…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전남 귀어가구 30%·귀농가구 15% 줄어 지역 소멸 위기감

지난해 귀농·귀어가구가 1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산 1번지’이자 ‘국내 최대 규모 농도’인 전남은 귀어가구와 귀농가구가 전년 대비 각각 30%, 15%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귀농·귀어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촌 활성화 방안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귀농·귀어지역의 기본적인 의료·문화·교육 등 인프라 구축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어가구 수는 555가구로 전년(716가구) 대비 161가구(22.5%) 감소했다.

귀어가구 수는 2021년 1135가구, 2022년 951가구, 2023년 716가구, 2024년 555가구 등 지난

3년 새 절반 수준까지 추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전남이 194가구(35%)로 신규 귀어 가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충남(152가구), 경남(54가구), 전북(44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전남은 귀어가구 감소폭 역시 30.5%로 전북(-3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귀농가구 수 역시 1만 307가구에서 8243가구로 2064가구(-20.0%) 감소했고, 귀농가구 당 평균 가구원 수도 2.3% 줄어든 1.3명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귀농가구가 ‘나홀로 귀농’을 했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신규 귀농가구는 경북이 1537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남(1516가구), 충남(1074가구), 경남(965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농경지 규모가 미미한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한 ‘시도별 귀농가구’ 1조사 결과에서 모든 지역의 귀농가구 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국내 주요 농경

지들로 꼽히는 전남(-14.9%), 전북(-16.1%), 경북(-19.6%), 경남(-19.1%) 등이 모두 두자릿수의 하락폭을 보였고, 광역시에서도 부산(-60%), 대구(-24.1%), 울산(-22.2%), 인천(-9.2%) 등의 귀농가구 수가 대폭 줄었다.

지난해 귀농·귀어가구 수가 대폭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선 전반적인 인구 감소, 고령 취업자 증가 등이 꼽힌다.

특히 귀농·귀어 등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은 주로 50~60대 등 직장 은퇴시기의 연령층이 주도해왔는데,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양성 등 복지 정책이 이들의 농·어업 및 취업을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귀농가구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50대가 2407명으로 전년(3274명)보다 26.5% 줄었고, 60대(-18.9%), 70대 이상(-23.8%) 등 대폭 줄었다. 전체에서 50대 이상 연령대가 차지하는 귀농 비중도 77.5%에서 75.1%로 감소했다.

귀어가구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40대(-52명~-33.5%)가 가장 많이 줄었고, 50대(-49명~-20.5%), 60대(-44명~-21.4%) 등 고령층 귀어가구가 대폭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투명·공정 업무 수행”…농어촌공사,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공정한 직무수행·청탁 금지 등
청렴계약 위반 시 성과급 환수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6일 나주시 빗가람동 본사에서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직무 관련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인중 사장, 이광래 감사, 상임이사 전원 등 간부진들이 참여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6년 제정한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임원부터 직원까지 전사적인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것 데 목적이 있다. 계약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 준수,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행위와 관련된 금품수수·이권 개



입·알선·청탁 등 금지, 직무청렴계약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직무청렴

계약을 계기로 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식품부 “농촌혁신 창업자 찾습니다”

8월 8일까지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오는 8월 8일까지 ‘2025년 인팩트업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과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으며, 기존 농업 위주의 정책에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육성 등을 통한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농촌 관련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7년 미만의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월 8일 오후 3시까지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회는 예선으로 서류평가, 오는 9~10월 본선에서는 발표평가를 거쳐 11월 18일 최종 결선이 진행된다.

대회에서는 총 11팀을 최종 선정한다. 대상(1팀)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최우수상(2팀)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각 2000만원, 우수상(3팀)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각 1000만원이 수여된다. 또 입선(5팀)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각 300만원을 선발·시상한다.

이 밖에 최종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본선을 통과한 15팀을 대상으로는 본인만의 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최종 결선에서 수상한 팀 중 우수팀은 농업·농촌과 연계해 사업모델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업화자금 1억원을 지원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시끌벅적 ‘무더위 쉼터’ 원두막이 그림다

형태·기능 변모했지만 나뉘던 정은 변치 않길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탓인지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온열 질환을 부르는 불볕더위에도 소소한 행복을 주는 곳이 있어 위안이 됐다. 지금으로 치면 ‘무더위 쉼터’라 할 수 있는 원두막이 그것이다. 에어컨이 없던 그 시절 원두막은 최고의 피서지였다. 동네 앞 들녘을 걷다가 지칠 정도면 만나는 원두막은 사방이 뚫려 있어 시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길손들이 참으며 수박을 사 먹으며 땀을 흘리며 쉬어 가는 곳이기도 했다.

원두막은 또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다. 들에서 일하다가 새참도 먹고 낮잠도 자는 곳이었다. 오며 가며 모인 어른들은 원두막에 앉아 막걸릿잔을 나누기도 했다. 어수룩해지면 아이들의 은밀한 작전 수행을 위한 아지트가 되기도 했다.

원두막은 주야가 없었다. 한쪽에 준비된 두툼한 이불이 말해주듯 한밤중에는 제법 서늘하기까지 했다. 모기향을 피우고 수박 한 통 쪼개 먹으며 밤늦게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무더위도 쫓고 수박 서리 하러 오는 ‘밤손님’도 쫓으니 일석이조(一石二鳥)였다.

그런 원두막을 언제부터인가 보기 쉽지 않게 되었다. 농사가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인은 참외와 수박 등 원예작물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동시에 서러리는 단어도 거의 잊혀졌다. 인심이 각박해질 대로 각박해지면서 서리가 도둑질과 동일 행위가 되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농촌에는 참외나 수박밭에 몰래 기어들어 갈 말한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게다. 누구로부터 무엇을 지키겠다고 원두막을 지을 것인가.

사라진 원두막은 페넨테이너가 대신했다. 무더위에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자녀가 선물하거나, 자비를 들여 설치하기 시작한 것들이다. 논·밭살사를 위한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이자 피곤한 몸을 잠시 누이는 휴게소 역할로 현

대식 원두막인 셈이다. 내부도 실용적으로 꾸며 놓고, 냉장고며 에어컨까지 갖춘 호화로운 시설도 있다.

산밭이나 소규모 농장에 있는 좀 더 호사스러운 농막(農幕·farm hut)도 일종의 원두막이라고 할 수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물을 간이 처리할 때 혹은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 건축물(천막)을 가리킨다. 또 농지법상 농막은 임시 시설(연면적 20㎡ 이하)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법’ 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해 관련법에서도 주거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허용되지 않는 숙식이 일상이 되면서 화재 등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농촌체험형 쉼터(이하 쉼터)’이다. 농막에서 발생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기반을 둔 농촌 주거시설이다. 농업인과 주말·체험농희망자들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지만,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실용성과 설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각 지자체가 잇따라 농지 활용과 농업인 등의 편의 증대를 위한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절이 변해 농민들의 쉼터는 원두막에서 컨테이너와 농막, 농촌체험형 쉼터로 진화하고 있지만, 농사하며 찾는 소박한 즐거움과 함께 나누는 정 그리고 농사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만큼은 변치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bigkim@kwangju.co.kr

쿠광, 못난이 사과 200t 매입…버터·땅콩 조합 상품 개발

쿠광은 국내 주요 사과 산지에서 생산된 ‘못난이 사과’ 약 200t(톤)을 매입하고 이를 활용한 신규 상품 ‘사과 일병 구하기’를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사과 일병 구하기’는 외형상 상품성이 낮아 일반 유통이 어려운 못난이 사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쿠광은 영주, 안동, 봉화, 예천 등 경북 지역에서 못난이 사과를 대량 매입했다. 경북은 국내 사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지다.

쿠광은 못난이 사과 2.5kg과 무가당 천연 땅콩 버터 160g을 세트로 구성된 ‘사과 일병 구하기’를 개발했다.

전국 쿠광 와우회원 대상으로 로켓프레시를 통해 판매되며 간편한 아침 식사나 건강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쿠광은 헤이즐버터, 아몬드버터 등 견과류 버터와 사과를 조합한 상품을 추가 개발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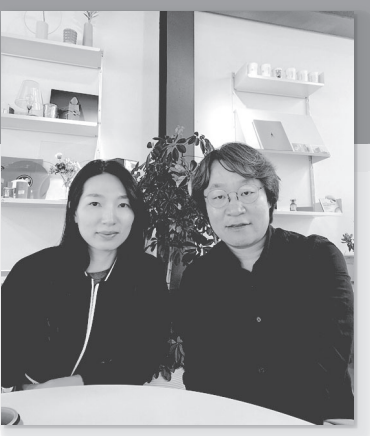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